2013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록

1. 회의 개요

□ 일 시 : 2013. 1. 23(수) 17:00~18:40

□ 장 소 : 공대엔진이어링하우스 라쿠치나

□ 참 석 : 위원 9명 전원 참석

○ 외부전문가 및 동문 : 김재식(위원장), 조춘(부위원장), 김경률 위원

○ 학교대표 :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(대리)

○ 학생대표 : 연창기, 전경호, 김가람 위원

2. 회의 안건

○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3. 회의 내용

□ 안건 설명

○ 전차회의록 설명(예산과장)

□ 회의 진행 및 주요 토의내용

○ 등심위 위원 9명 전원 참석함에 따라 회의 개회

○ 학생측에서 전차회의록 중 발전기금 예산서 공개로 기술한 부분을 발전기금 예산서 회람으로 수정 요청하여 회람으로 수정

○ 학생측에서 안건 제안 및 입장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질의 답변

- 1) 2012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등심위 종료 후에라도 학부생 대표에게 제공

  답변 : 2012년도 법인회계 결산서 마감 후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함

- 2) 예산편성시 단위 기관에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지원 보장하는 등의 예산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면 제도화하거나 아니라면 신규/계속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

답변 : 예산안 편성시 각 기관에서 요청한 여러 사업중 예산의 한계로 일부 사업에 일정금액을 지원하게 될 때 사업의 계속지원 또는 변경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중단 등의 여러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향후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 예정

- 3) 특별현안 사업비는 예산안 수립당시 예측 가능했던 사업들에 상당수 사용되고 있는데 예산안 수립시에 최대한 반영하고 규모는 최소화함이 바람직함

답변 : 특별현안 사업비는 주로 회계연도 운영 중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재정 소요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선별하여 최소한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향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겠음

- 4) 학교에서 제출한 차기 연도 이월액의 항목 중 공공요금 1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늘어나는 공공요금 부담이 당초 등록금 인상 요인의 하나라고 했던 근거에 의문을 가짐

답변 : 공공요금 예산액은 249억원이며 2012.12월 집행 기준으로 2013. 2월말까지의 집행 잔액 추정치가 11억원이나 이는 회계연도 중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발생된 잔액이며 2013. 1월에 공공요금 인상이 또 이루어져 그 집행 잔액은 감소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, 공공요금 증가현황은 결산 후의 연도별 증가 현황 파악이 중요

- 5) 발전기금은 장기적으로 법인외 기구에서 법인내 기금 회계로 전환하여 대학 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

답변 : 발전기금은 서울대내의 회계이기는 하나 별도 재단법인으로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 독자적인 예·결산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음, 그러나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이 개정되면 가능하다고 봄

- 6) 등심위 위원 중 학생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의 추천권은 규정에 명시하고, 등심위 위원 2년 임기제를 학생에게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(연임가능)으로 변경함이 안정된 등심위 운영에 기여할 것임

답변 : 타당성이 있으며 그 의견을 받아들여 규정개정 후 시행 예정

○ 학교측에서는 학부생 안건 제안 및 입장 제출 내용에 대해 2011년도 예결

산 검토 결과와 2012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, 발전기금과 법인회계 관계를 상세히 설명

○ 학생측 위원이 2012년도 등심위에서 학부등록금은 5% 인하하고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률을 높여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

- 대학원생들을 위한 Young Star Program 등 실질적인 장학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

○ 학교 측은 등록금 3%를 인상하여 인상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안과 취지를 재차 설명

○ 학생 측은 학교 측이 등록금 3%를 인상하여 인상분은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안을 국가장학금 유형 Ⅱ와 관련해서 오히려 일부 금액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

○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국가장학금 유형 Ⅱ로 지원하는 국가지원금이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로 인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이 당해 연도에는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고 있으나 해가 지날수록 소멸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대학에 재정부담이 되고 있음을 설명

○ 학교측은 3% 등록금 인상이 안된다면 국가장학금 유형Ⅱ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 등록금을 0.25% 인하하되 대학원도 학생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같이 인하함을 제안

○ 이에 대해 학생 측은 국가장학금 유형Ⅱ를 받기 위해 0.25% 인하 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이라고 주장

○ 학교 측은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하로 인한 수입이 5억원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하이며 한번 인하된 금액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미치게 됨으로서 대학 재정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임.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율 3.1%(2013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율 산정기준.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-619호, 2012.12.11.)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3.1% + 0.25%가 인하됨을 설명.

○ 학교측의 대학·대학원의 등록금 0.25% 인하안에 대해 안건상정에 동의하고 표결하기로 함

4. 심의 결과

○ 전차회의록에 대해 발전기금 예산서 공개를 회람으로 수정

○ 2012년 예산 집행결과를 결산 마감 후 학부생 대표에게 결산자료 제공 후 설명키로 함

○ 전문가 위원 1인의 학생측 추천 명문화, 외부 전문가 위원 임기 1년(연임가능)은 규정 개정 후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함

○ 학교측 등록금 책정(안)인 학부·대학원 수업료 0.25%인하에 대한 안건 상정에 동의

○ 상정된 학부, 대학원 수업료 0.25%인하에 대해 공개 표결하기로 하고, 표결결과 찬성 6명, 반대 3명으로 통과되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기로 함

○ 표결 현황

위 원 장:김재식(찬성) 부위원장:조 춘(찬성) 외부위원:김경률(반대)

학생처장:이재영(찬성) 기획처장:남익현(찬성) 사무국장(대리):공병영(찬성)

학생위원:연창기(반대) 학생위원:전경호(반대) 학생위원:김가람(찬성)